

## 세이비어 교회 소식

-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교우 위원 헌신예배(24일)  
이번 주 수요일예배는 교우위원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교우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로예배 안내  
오늘 식사 친교 모임 후에 안상미 집사의 아버지 위로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회 창립 3주년 주일예배 안내  
11월 4일 주일은 교회 창립 3주년 주일입니다.  
친교 후에 각 구역별로 찬양 경연 대회 및 장기자랑이 진행됩니다.
- 성찬식 및 세례식 안내  
다음 주 예배 중에 성찬식과 세례식이 있습니다.
- 이번 주 친교  
이번 주 친교는 베이사이드 구역에서 준비합니다.  
다음 주 친교는 우드사이드 구역입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 10월 봉사위원

일자	주일기도	수요일예배	친 교	안 내
10/21		교우위원 헌신예배	베이사이드	한순자
10/28	최홍만	표하나	우드사이드	한순자

## 예배 및 모임 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1부)	주일 오전 11시 30분	지하 친교실
주일예배(2부)	주일 오후 1시 15분	본당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8:00	본당
토요새벽기도회	토 새벽 6:00	본당
유,초등부	주일 오후 1:15	주일학교 예배실
중,고등부	주일 오후 1:15	중고등부 예배실
성가연습	주일 오전 11시	성가대실
성경공부	목요일 오전 10시 토요일 오전 8시	1층 친교실
새 가족반	주일 예배 후	1층 친교실
한글학교	토요일 오전 9시 30분	각 교실에서

## 주일설교요약

제목 :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2)

본문 : 누가복음 11장 1~4절

기도제목 : 1.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2.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게 하소서.  
3.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함께 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누게 하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3가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것 즉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 기도가 하나님이 정하신 틀에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알고 만나서 부탁을 한다고 해도 나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나라의 법에 맞아야 가능합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성품과 선하신 뜻에 맞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만 기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원을 먼저 살펴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을 향한 기원 중 첫 번째에 해당하는 3절 말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원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매일 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생각해볼 것은 미국에서 살면서 이런 기도가 과연 얼마나 현실인가? 질문해 봅니다. 먹을 것들이 넘쳐나는 땅에서, 호화롭게 적게 먹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황 가운데, 매일 매일 먹을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려는 기도가 과연 우리들에게 어떻게 다가 오는가입니다.

1. 광야에서의 일용할 양식  
예수님께서 날마다 먹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날마다 먹었던 양식 만나의 법칙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일 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정하신 여러 규칙 중에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로 매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무슨 뜻인가요? 만나를 광야에서 주우러 나갈 때, 모든 사람이 다 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 안에서 몇 명이 대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한 사람이나 거동이 힘든 사람들은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주우러 나간 사람이 장막에 남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 몫도 주워와야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18절의 말씀을 보면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먹을 수 있도록, 넘치는 자도 부족한 자도 없이 다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만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2. 우리(공동체)의식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개인적인 영역에서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제일 많이 언급이 되는 단어가 바로 공동체를 나타내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매일 매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내가 먹을 양식이 이미 확보가 된 사람은 이 기도를 할 필요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만 오늘 먹을 양식이 충분 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양식이 있는가? 그 부분을 생각하고 체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 배가 고프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기도를 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괜찮으면 괜찮은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는 없는지? 그것을 살피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내가 주워온 이 만나를(하나님이 주신 양식이라는 뜻, 내가 만든 양식이 아니다) 그렇지 못한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가는 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매일 매일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양식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살아가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더욱 깊어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양식을 감사하게 먹으며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공동체 안에 매일 매일의 양식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은 없는지, 이 사회에는 없는지, 그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 열려 있는 마음을 가지고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은 적은 것이지만 그것을 그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세이비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 일 예 배

	오전 11:30분(1부) 오후 1:15분(2부)	수요일예배
예배로 부르심 Call to Worship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b>교우위원 헌신예배</b> 말씀 /정요한 목사  기도: 교우위원 중
▲ 송영 Invocation	찬양대 Chorus	
▲ 고백의 기도 Confession of Sin	다같이 Together	
▲ 찬 송 Hymn	21장	
▲ 신앙고백 Confession of Faith	사도신경 Apostles' Creed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38번(이사야 42장)	
찬 송 Hymn	395장	
기 도(Prayer)	송명건 집사	
성 경 Scripture	누가복음 11장 1~4절	
찬 양 Praise	세이비어 찬양대	
설 교 Message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2)	토요일 새벽기도회
▲ 헌 금 Offering	71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사도행전 강해  토요일 새벽 오전 6시
▲ 찬 송 Hymn	주기도문 송	
▲ 축 도 Benediction	정요한 목사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도자	

헌금은 본당 입구 헌금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10월 행사안내

- 21일(주일) = 안상미 집사 아버지 소천 위로예배, 밀알의 밤(김창욱 교수)
- 24일(수) = 교우 위원 헌신예배
- 28일(주일) = 성찬식 및 세례식
- 11월 4일(주일) = 창립 3주년 주일예배(구역 찬양 경연 대회 및 장기자랑)

구역별 선교사

통아일랜드 구역	베이사이드 구역	플러싱 구역	우드사이드 구역
순희 선교	우간다	브라질	인도

담임목사 정요한  
 시무장로 최홍만 배한우  
 교육전도사 김차인 김호진 지휘자/반주자 김타마라  
 275 Lakeville Road Great Neck, NY 11020  
 ☎ Tel : (718) 673-6448 / www.mysaviorchurch.com

▲ 표는 가능하시면 일어나심 (Standing, If possible)